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7. 7. 9(일) ~ 7. 30(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알고마 대학교는 다운타운과 가까웠고 저의 홈스테이 집에서도 많이 가까웠습니다. 집이 멀었던 몇 명 친구들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환승해야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시설은 너무 깔끔해서 놀랐습니다. 학교 외관 자체로도 너무 이쁘고 체육관 시설도 너무 잘 되어있어서 어른들도 많이 와서 운동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 바로 정류장이 있어서 시간만 잘 맞추어서 나간다면 기다리지않고 버스를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밖에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희는 speak easy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사권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편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어서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이 알차고 골고루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하여 분반을 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모든 수업들이 한국 수업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영어로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Reading 시간에는 모르는 단어도 찾고 직접 읽으면서 발음도 교정해주시고 토론도 하면서 알찬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Writing 시간은 academic writing을 알려주면서 글쓰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Grammar시간엔 게임을 통해 문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Technology 시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기에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는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과 아이들을 위해 태극기 모양으로 색종이를 찢어 모자이크 놀이도 하고 아이들의 춤도 보고 1대1 매칭을 통해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colour blast를 통해 한국에서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도 했으며 특히 무한리필 스시집이 정말 정말 많이 맛있었습니다.) 스시먹고 볼링도 치러가고 딸기도 따라갔었습니다.</p> <p>또한 Lake Superior호는 정말 물이 유리처럼 깨끗합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더 즐거웠을텐데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홈스테이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집 앞 정원에서 캠프파이어를 하여 스모어도 만들어 먹고 수세인트마리에서 값진 경험들을 하고 왔었습니다. 하이킹도 하러가고 홈스테이 엄마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수세인트마리에도 놀러갔었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2명의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미국이라서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고 저희 같은 경우엔 visitor pass를 만들어서 다녀오기 때문에 갈 것이라면 무조건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가야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7월이라고해서 한국처럼 더울 줄 알고 긴팔이라곤 얇은 남방 하나만 가져가서 캐나다에서 가디건과 남방을 사왔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비가 오면 거의 17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반팔보단 얇은 긴팔을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교실이 너무 좁기에 학교 갈 땐 거의 겹옷을 무조건 챙겨갔습니다. 거기서 후드티를 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해가 떠도 덥지 않기에 긴 팔 많이 가져가세요!하지만 햇빛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샌들만 신고다니다가 발등 줄무늬 모양으로 탔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해가 10시30분에서 11시에 지기 때문에 치안으로는 전혀 걱정이 될 것이 없습니다. 마을 자체가 너무 평화롭고 안전하기 때문에 아홉시 열시에 집에 들어가도 저녁7시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말도 안하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홈스테이 엄마가 걱정하시기에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고 말하고 학교가세요!</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의 홈스테이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저 혼자기에 엄청 큰 집은 아니지만 2층에 제 방이 있고 1층에 거실이 있고 지하1층이 family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도 아늑하고 밤에 조명을 켜놓고 홈스테이 엄마랑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다른 집도 놀러가보면 각자 집만의 매력이 있고 다 시설이 좋았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o)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거의 식사는 홈스테이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점심은 홈스테이 엄마가 싸주시는 것으로 먹었기에 식비로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또한 외식도 따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녁먹기 전에 집에 들어가거나 먹어도 station mall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station mall에 있는 푸틴 드세요! 너무 맛있습니다ㅠㅠ!그리고 처음가면 다 달고 짜고해서 많이 음식이 안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컵라면을 많이 챙겨와서 점심에 홈스테이 엄마가 싸주신 밥이랑 같이 먹었고 저 같은 경우엔 봉지라면이랑 비빔면도 가지고 와서 집 부엌에서 직접 친구들과 만들어먹었습니다! 여기에도 컵라면이 팔지만 한국에서 만든 것 이라도 안 매웠습니다. 컵라면 많이 들고오세요~!</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버스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있어서 2~3일이면 버스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학교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 집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아침마다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도 버스타고 터미널에 들어서 필요한 것을 사고 집으로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30,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779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200,000	
가디건, 남방	30,000	
면세점	70,000	
기타 식비	100,000	
합계	4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한 장 정도는 필히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씁니다. 제가 스터디 어브로드로 미국에 10일갈 때 1000000원을 들고가서 거의 900000원을 쓰고 왔는데 여기서 3주 있는동안 570000원정도 환전해서 45만원 정도만 쓰고 왔습니다. 식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커피도 팀홀튼 같은 경우 한국보다 훨씬 싸서 거의 돈이 들지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캐리어에 에코백하나 들고갔는데 정말 부족했습니다. 캐리어 싸다가 터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큰 캐리어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 들고 가서 기념품은 작은 캐리어에 다 넣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홈스테이 가족들과 미국을 간다면 거기서도 캐나다달러를 사용하지만 캐나다달러보다 미국달러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캐나다에 파는 드림캐쳐는 비쌌는데 미국은 조금 더 쌌습니다. 또한 동전주머니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편할 것이고 동전 많이 쓰고 오세요! 그리고 환전 할 때 큰 돈 보단 50이나 20달러로 가져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이번에 돈 남겨올 때 100달러로만 2장 남아서 면세점에서 쓰고 왔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진짜 이번에 다녀온 것이 제 인생에서 제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주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3년동안 다니고 졸업식때 눈물 한 방울 나지않았는데 여기서 졸업식을 할 때 평평 울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안아줄때도 엄청 울고 홈스테이 엄마랑 단상에서 사진 찍고 안아주실 때 엄청 울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이 출국이었는데 졸업식 때 엄청 울어서 공항에선 울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공항에서 더 울었습니다. 엄청 울고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안고 있고 평소 편하게 지내던 홈스테이 부모님, 엄마들과 헤어질 때도 엄청 울고 특히 저희 엄마랑 보안검색대 앞에서 헤어질 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저의 홈스테이 엄마가 저 몰래 가방에 목걸이와 편지를 몰래 넣어준 것을 보고 한 번 더 울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정도 쌓고 다들 값진 경험을 했기에 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정말 학교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으로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영어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기에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와서 시차적응보다 날씨적응이 저에겐 힘들었습니다ㅋㅋㅋㅋ진짜 후회하지않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회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세요!!외국인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한국와서도 계속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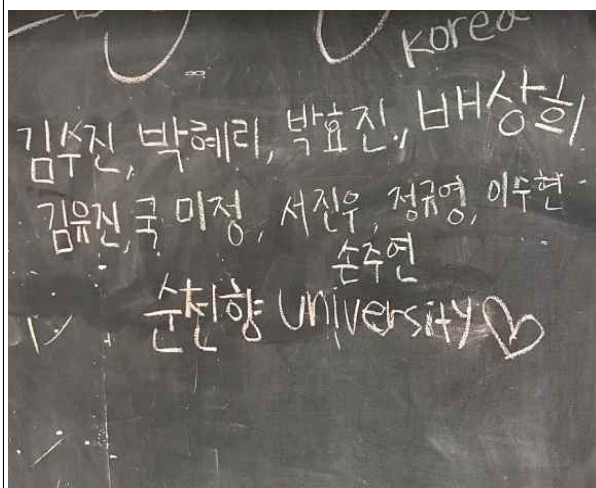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어린이들과 태극기 모자이크 놀이



미국 수세인트마리에서



Bush Plane museum 칠판에~!



평소 날씨입니다! 건너편 섬이 미국이에요



Colour Blast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저희 홈스테이집 외관입니다!